

**가톨릭 사이타마 교구**

6-4-12 Tokiwa, Urawa-ku,  
Saitama City, SAITAMA  
330-0061 JAPAN  
TEL : 048-831-3150  
FAX : 048-824-3532



**カトリックさいたま教区**

〒330-0061  
埼玉県さいたま市浦和区  
常盤 6-4-12  
TEL : 048-831-3150  
FAX : 048-824-3532

2013 年 新年 주교 메시지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마르코 2,22)

사이타마 교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께

성탄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됨을 축하 드립니다.

작년 10 월부터 우리는 신앙의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갔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연시를 즈음하여, **사도행전,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사이타마 교구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해]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곤란과 고난을 극복하고, 많은 이방인들을 신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안티오키아에 돌아와서, 크게 기뻐하며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과 이방인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사도 14,27) 보고하였습니다.

그 때, 이방인들을 선교함에 있어서, 할례가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할례는 모세에 의한 관습에 따른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할례는 이방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첫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은 할례라는 짐을 지게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길을 나서, 많은 사람들과 만난 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의 문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신앙의 문을 크게 열리게 한 공의회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와 그 후, 1900 년이 지난 후에 열린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입니다.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쇠신을 외치며, 갈라진 형제 자매들과 화해를 하고, 모든 사람들, 특히 고통 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는 교회를 목표로 하는 공의회였습니다. 교회가 쇠신되는 것에 의해서 신앙의 문을 열고자 했다는 것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교회가 쇠신되는 것에 의해서, 교회가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 보다 어울리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느님께서 초대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 아무도 새 포도주를 현 가족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르코 2,22)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의 특색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물론, 하느님이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쇠신되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문이 많은 이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 사이타마 교구의 행보

여러분께서는 동 일본 대재난과 후쿠시마(福島)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통해서, 많은 피해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만났고, 함께 있는 것의 중요함,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쇠신되고, 신앙의 새로운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우리는 많은 이들과 특히 소외된 이들과 많은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이 쇠신되고, 신앙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여를 하는 것에 의해, 쇠신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沖縄) 미군기지 문제처럼 보통 우리의 생활과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또한 신앙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리라 봅니다.

우리도 선교 여행을 떠나, 커다란 기쁨 속에, 「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모든 것들과 이방인에게 신앙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보고했다 」는 바오로와 바르나바처럼 되고 싶다고 희망해봅니다.

이 한 해, 여러분께 많은 이들과의 만남이라는 은혜가 주어지도록 축복을 보내드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하소서.

2013년 1월 1일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지(谷・大二)